

# LUX HUMANITAS

VOL. 15. 2013

KYUNG HEE UNIVERSITY NEWSLETTER

##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 SPECIAL REPORT

- 02 경희의 학술문화, 탁월성의 미래
- 03 “포용의 가치, 자기실현의 문화 창조가 핵심”
- 04 학술적 탁월성을 위한 ‘학술진흥 2020’
- 06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 거둔 ‘WCU 사업’

### FOCUS

- 08 2013 QS 아시아대학평가, 30위권 진입
- 10 경희 로스쿨, 변호사시험 2년 연속 1위
- 12 총장과 학생의 독서토론, ‘아레테 북토크’
- 14 경희의 미래기술, 과학기술의 미래 개척
- 16 제3회 흥릉포럼 개최

### TODAY

- 17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추진
- 18 캠퍼스 복지환경 개선, ‘문화 창조’의 공간 창출
- 19 투지와 도전정신 돋보인 경희 스포츠
- 20 세계 재즈의 날 기념 ‘All That Voice’ 콘서트

### PEOPLE

- 21 경희 인물등정

### NEWS

- 22 경희 단신

Lux HUMANITAS 룩스 후마니타스

라틴어로 ‘인류애를 향한 빛’을 뜻하는 말로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는 경희의 창학이념을 상징합니다.



9 772005 761002  
ISSN 2005-716X

32

KYUNG HEE UNIVERSITY

SPECIAL REPORT

## 경희의 학술문화 탁월성의 미래

21세기 경희의 비전과 목표는 '학문과 평화'의 전통 위에서 교육·연구·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해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는 21세기 새로운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개교 70주년인 2019년까지 '아시아 정상권'에 진입하고, 개교 80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대학'의 위상을 확립할 계획이다. 공부만 잘하는 대학을 넘어, 고등교육을 통해 더 나은 나, 더 나은 대학, 더 나은 세계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 경희가 지향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이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위해 학술적 탁월성을 성취해야 한다는 정책 판단에 따라 경희는 '학술진흥 2020'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 석학, 학문의 대가를 존중하는 포용의 학술문화, 구성원의 창조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자기실현의 대학문화 형성은 학술적 탁월성의 기반이다.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행정적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오는 8월 종료되는 WCU 사업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이룩한 학술적 성과를 돌아보고 경희학술의 미래를 전망해본다.



# “포용의 가치, 자기실현의 문화 창조가 핵심”

조인원 총장, “소통·공감·합의가 학술적 탁월성의 기초” 강조  
개교 70주년 준비하며 ‘세계적인 대학’을 향한 ‘경희의 혁신’ 제안



‘학술진흥 2020’ 계획을 추진 중인 경희가 학술적 탁월성을 성취하고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소통·공감·합의’의 학술문화 형성이다.

경희가 추구하는 ‘학술적 탁월성’은 무엇인가. 다른 표현으로, 21세기 새로운 명문대학,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학문과 평화’의 학풍과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경희는 개교 이래 60여 년간 교육과 연구를 통해 쌓아온 학술적 열정을 실천으로 승화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왔다. 공부만 잘하는 대학이 아니라,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으로서 고등교육을 통한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지향해왔다.

조인원 총장은 2월 21~22일 강원도 양양에서 개최된 2013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인사말에서 “실천적 함의를 갖고 있는 학술세계의 깊이와 성숙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경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전통”이라고 말했다. ‘경희의 학술세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라는 주제의 이날 연찬회에서, 조인원 총장은 두 가지 철학적 개념을 제시했다. ‘포용(inclusion)’의 가치 창조, ‘자기실현 강화(empowerment)’를 통해 경희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포용’과 ‘자기실현’은 학술적 탁월성을 성취하기 위한 경희의 가치 지향이자 구체적 방법론이다. 모든 인간과 제도는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며 대화와 소

통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 자체가 탁월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포용의 학술문화는 세계적 석학, 학문의 대가를 잉태하는 토양이다. 또한, 모든 문화는 구성원의 자긍심·자발성에 의해 창조되기 때문에, 구성원의 열정이 역량 강화로 연결되는 ‘자기실현’의 제도 확립과 운영이 요구된다.

## 미래전략과 연계된 ‘학술진흥 2020’ 계획 본격 추진

경희는 지난해부터 ‘학술진흥 2020’ 계획 아래 교육, 연구, 실천, 행정, 인프라 등 전 분야에 걸쳐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희의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미래전략은 개교 70주년(2019년)까지 학술적 탁월성을 성취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목표다.

‘세계적인 대학’의 기준은 무엇인가. 국내외 대학평가기관의 순위, 또는 사회적 평판도가 전부는 아니다. 조인원 총장은 “남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평가”라며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경희는 세계적인 대학이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자긍심은 개개인의 공감 위에서 형성된다. 경희가 학술적 탁월성을 성취하고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소통·공감·합의’의 학술문화 형성이다.

# 학술적 탁월성을 위한 ‘학술진흥 2020’

세계적 석학 초빙, 우수 교원 영입, 교육의 질 향상, 교원인사제도 개선 추진  
 개교 70주년까지 ‘아시아 정상’, 개교 80주년까지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



세계적 석학 초빙과 우수 교원 영입,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경희는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학**술적 탁월성을 위한 경희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2년 3월 8~9일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1학기 합동교무 위원연찬회였다. ‘가지 않은 길(The Road Ahead, Empowering Global Eminence)’이란 주제의 연찬회에서 조인원 총장은 “지난 4~5년간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노력한 결과, 경희가 생산하는 논문과 저서의 총량 면에서 훌륭한 성취가 이뤄졌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총량 외에도 또 다른 학문적 수월성을 중시해야 할 때가 왔다”며 질적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 후 경희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술적 탁월성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개교 70주년까지 ‘아시아 정상’으로 발돋움하고 개교 80주년인 2029년 이전에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한다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더 높은 학문적 수월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학술진흥 2020’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희는 ‘구성원의 공간과 합의를 통해 학문적 대가, 석학, 거장을 존중하는 대학문화를 창출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세계적 석학 영입과 우수 교원 지원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1의 조건은 우수한 교수 요원 확보와 지원이다. 이과대학 남순건 학장은 “1%의 최고 석학,

10%의 리더, 30%의 우수한 연구자에 의해 대학 발전이 이뤄진다”면서 “대학의 경쟁력은 우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공간적 지원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경희는 지난 6년간 인터내셔널칼라(IS), 에미넌트스칼라(ES) 제도를 운영해 폴 케네디, 존 아이켄베리, 슬라보예 지젝 등의 석학을 초빙했다. 세계적 석학 영입은 연구 활성화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취 의욕을 고취해 학술문화를 선진화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해외 명문대학과의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학과 특성화 등도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응용과학대학 최석호 교수(물리학과)는 ‘꿈의 나노 물질’로 불리는 그래핀의 광증폭 작용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우주과학 분야로 특성화한 일반대학원 우주탐사학과 이동훈 교수 연구팀은 국내 최초로 지구 근접 우주탐사용 초소형 인공위성 시네마(CINEMA)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이과대학 장진 교수(정보디스플레이학과)는 연간 20편 이상 SCI 논문을 발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한국 연구진 최초로 미국 전기전자학회지(IEEE)가 선정하는 전자소자 분야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경희가 새로 영입한 교수들의 연구도 활발하다. 생명과학대학 안진홍·손영숙 교수(유전공학과), 전자정보대학 김선구·박옥 교수(전자전공학과), 이과대학 배진우 교수(생물학과)의 연구 논

문이 각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경희의 연구 역량은 전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8년부터 실시된 '경희 Fellow' 제도 역시 연구 역량 강화와 학술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연구 업적이 탁월한 교수를 경희 Fellow로 선정, 연구격려금(연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책임강의시간을 축소하는 등 학교의 존중심을 표현하고 있다.

### 전공 심화 프로그램과 후마니타스 교양교육

교육의 탁월성과 관련, 지난 6년간 경희는 많은 성취를 이뤘다. 교육부의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ACE 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된 대학은 경희가 유일하다. 사업수행평가에서도 경희는 우수·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경희의 교육 혁신은 전공 심화, 교양교육 강화, 사회공헌 확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Study in Field'는 전공 심화 및 현장 연계 장학 프로그램이다. 경희는 이공계 학부 연구생 40명을 선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대학원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전공 심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인턴십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로 3년째인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창조적 결과물을 산출해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 교원인사제도 개선

경희는 작년부터 교원정년 연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업적이 탁월한 원로교수의 정년 연장은 경희학술의 지속성과 함께 타 대학의 우수 교원을 영입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경희가 교원정년 연장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교수 업적에 대한 합리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경희는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원인사제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학문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고 연구 업적의 질적 차이를 고려해 보다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중이다. 승진 및 재임용, 교수업적 평가제도를 보완해 학문 성취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IS·ES 제도를 통해 세계적 석학 초빙을 활성화하고, 중신교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은 오는 7월 이후 구체화되며, 9월 이후 관련 규정 개정 및 내규 제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개교 60주년 공식 슬로건 '지구적 존엄의 구현(Towards Global Eminence)'은 '학술적 탁월성을 바탕으로 문화세계 창조에 기여한다'는 경희의 비전과 목표를 함축하고 있다. 학문적 권위의 재건, 소통의 학문세계, 화합과 창조의 미래사회 등 3대 정책 방향을 정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했다. 그 결과, 경희는 최근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국내 대학 7위권(종합대학 5위), 세계 대학 200위권, 아시아 대학 30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세계적 석학 초빙과 우수 교원 영입,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경희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

## 학술행정연구원 설립 계획

TF 구성, 목표·방향 수립하고 의견 수렴  
온·오프라인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부끄럽게도 교육이 뭔지 잘 모른 채 교수가 됐다. 전공은 잘 알고 있었지만 가르치는 사람의 덕목은 무엇인지,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속한 대학의 이념이 어떤 것인지 아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

"박사학위를 끝내고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대학이 어떤 것인지 피상적으로만 알았을 뿐 개관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대학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월에 열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총장과 교수의 대화' 시간에 오고 간 말이다. 앞의 것은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준봉 원장의 고백이다. 뒤의 말은 조인원 총장의 경험담이다.

이 자리에서 의학전문대학원 김영설 원장은 "초급 교수는 교수법을 배우고, 중급 교수는 학장과 처장 등 교무위원이 되기 위한 리더십을 준비하고, 교직원 모두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정책원 우응제 원장의 '학술행정연구원(가칭)' 설립 계획에 교무위원들은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

세계적 명문 하버드대학교의 고등교육연구소(HIHE)는 교육대학원 소속 연구소로,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고등교육에 접근한 세계 최초의 기관이다.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 연구소는 교육기관 리더들에게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 총장·부총장·학장 등 5개 직위별로 9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1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국내의 경우, 서울대학교는 2012년 7월 법인화를 계기로 대학행정교육원을 설립, 보직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별도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경희는 21세기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학술문화와 전문행정의 수준이 더 높아지고 성숙해져야 한다고 판단, 독자적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학과 교수, 직원 대표가 참여하는 '학술행정연구원(가칭) 설립 TF'를 구성해 기획안을 작성하고,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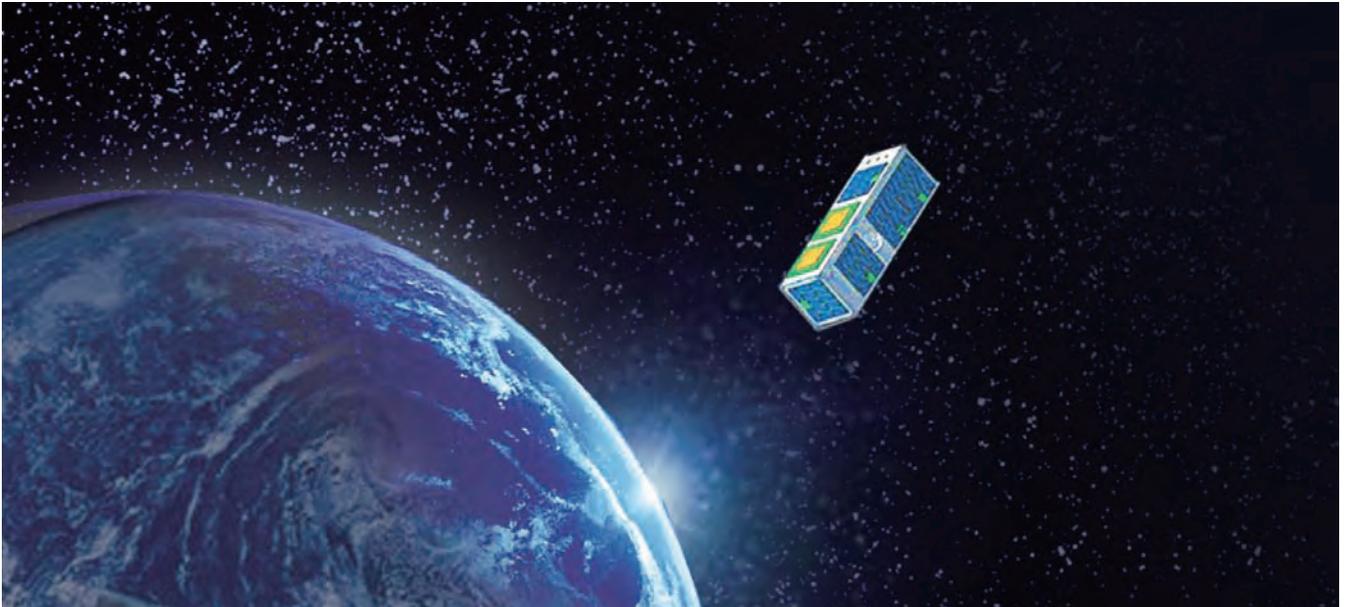
학술행정연구원은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의 학술행정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21세기 고등교육의 역할과 사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경희의 미래를 위한 '학술문화 진흥 방안(Kyung Hee Way)'을 모색한다.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뒤 교무위원 등 보직자와 교직원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과 연수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경희는 학술문화·전문행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술행정연구원을 설립한다.

# 반도체·천연물 신약·생명공학·우주탐사 등 세계 수준의 융복합 미래기술 개발

WCU 4개 사업 선정 후 5년간 탁월한 연구 수행, 우수 인력 육성



지난해 9월 14일 경희는 버클리대학교와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우주탐사용 초소형 인공위성 '시네마 1기'를 미국 반덴버그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육성을 위한 'WCU 사업'이 오는 8월 말 종료된다. 2008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서 경희는 나노 구조체의 비파괴 분석법 개발, Gsk3β 활성화 항바이러스 천연물 신약 개발기술, 친환경 다수확 신초형 벼 모델 개발, 달 궤도 우주탐사 등 4개 사업에 선정됐다.

'WCU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 발전 핵심 분야의 미래 지향적 연구를 촉진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대형 국책사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WCU 사업' 성과는 최근 5년간 경희가 이룩한 학술적 탁월성을 확인하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된다.

## 나노 구조체의 비파괴 분석법 개발



김영동 교수

중전에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완제품 중 일부를 무작위로 골라 파괴한 후 결함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을 취

반도체 산업은 한국 산업의 중추이자 미래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극도로 소형화된 3차원 나노 구조체 소자에 대한 빠르고 정밀한 검사다. 완제품 상태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했다. 그만큼 손실이 많았다. '나노 구조체의 비파괴 분석법 개발' 사업단은 빛의 특성(투과 및 반사)을 이용한 타원편광분석법으로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도 불량품을 발견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 제조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의 계기를 마련했다. 연구책임자 김영동 교수(물리학과)는 "반도체 소자 생산 과정에서의 비파괴·실시간 모니터링은 공장을 하나 더 세우는 것만큼의 파급력이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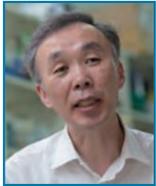
이 연구에 활력을 더해준 것은 타원편광분석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데이비드 E 아스프네스(David E. Aspnes) 교수 영입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의 아스프네스 특훈교수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나노광물성연구실의 우수성을 인정해 초빙 제의를 수락했다. 나노광물성연구실은 국가지정연구실(National Research Lab, NRL)로서, WCU 사업 선정 전에도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노 구조체의 비파괴 분석법' 연구 결과는 <어플라이드 피직스 레터스(Applied Physics Letters)>, <옵틱스 레터스(Optics Letters)> 등 SCI급 학술지에 12편의 논문이 게재되는 성과를 낳았으며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도 79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한국과 미국에서 6건의 특허를 등록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해 공정의 효

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 및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영동 교수는 “WCU 사업 종료 후에도 관련 연구를 진행해 1초 이내의 빠른 속도로 나노 구조체를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 Gsk3β 활성화 항바이러스 천연물 신약 개발기술



김동현 교수

흔히 에이즈(AIDS)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은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에 의한 질병이다. 그동안 바이러스 증식을 막고 병의 진전도를 늦추주는 치료제들이 개발됐지만 아직도 불치병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고, 여러 경로를 통해 감염될 수 있음에도 ‘불결한 성병’으로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환자 표본을 모으기가 어려워 에이즈 치료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약학대학의 ‘Gsk3β 활성화 항바이러스 천연물 신약 개발기술’ 사업은 이런 문제 인식에서 시작됐다. 연구책임자 김동현 교수는 “국내 환자들이 에이즈 치료에 대해 좀 더 희망을 갖고 약물 복용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에 임했다”고 말한 뒤, “기존 에이즈 치료제의 부작용 등으로 한계를 느낀 이들을 위해 천연물(한약)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연구 수행을 위해 미국 로체스터대학 김백 교수를 초빙했다. 경희대 약학과 출신인 김백 교수는 HIV, 플루 등 바이러스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인 인물이다. 지난해 단백질 SAMHD1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dNTPs를 줄여 HIV를 막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연구 결과를 세계적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 게재하기도 했다. 김백 교수는 “경희대에 한의학 관련 정보와 연구 기반이 충분히 쌓여 효율적인 융합 연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사업단은 연구 과정에서 인삼의 에이즈 치료 효과를 발견, 관련 논문들을 바이오 분야의 세계적 저널에 발표해왔다. 김동현 교수는 “인삼의 효능과 한의학의 과학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친환경 다수확 신초형 벼 모델 개발



전종성 교수

지구적 차원에서 쌀 생산은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농약과 화학비료 남용으로 먹거리의 안전성, 생태계 파괴 등의 부작용도 낳고 있다. ‘친환경 다수확 신초형 벼 모델 개발’ 사업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연구가 시작됐다. 연구책임자 전종성 교수(생명과학원)는 “세계적으로 쌀 소비량이 늘고 있는 만큼 벼의 생산량 증대가 중요하다”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 인류의 평화와 복지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연구에 임했다”고 말했다.

사업단은 농약 없이도 병충해를 견디고 좁은 땅에서도 많은 쌀을 수확할 수 있는 친환경 다수확 신초형(New-Plant-Type) 벼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6만여 개의 벼 유전자를 분석했다. 긴 시간

과 인내를 필요로 한 연구 과정에서 벼의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와 불필요하거나 부정적 효과를 내는 유전자를 구분할 수 있었다.

‘친환경 다수확 신초형 벼 모델 개발’이 포함된 WCU 유형 3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연구 역량이 탁월한 세계적 석학을 대학에 유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경희는 벼 육종계의 대부이자 녹색혁명의 주역인 거텁 쿠시(Gurdev Singh Khush) 박사를 초빙해 연구를 수행했다.

### 달 궤도 우주탐사



이동훈 교수

지난해 9월 14일 경희는 버클리대학교와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우주탐사용 초소형 인공위성 ‘시네마 1기’를 미국 반덴버그에서 발사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시네마 1기’는 지구 상공 800km 궤도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경희의 달궤도우주탐사사업단은 WCU 사업 우주·국방 분야 유형 1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후 지난 5년간 총 142억 원을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해왔다. 사업 선정 조건에 따라 일반대학원에 우주탐사학과를 신설한 경희대학교는 지난해 말 시네마 2기(KHUSAT-1), 시네마 3기(KHUSAT-2)를 독자적으로 제작하고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다. 시네마 2~3기는 러시아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시네마는 ‘Cubesat for Ion, Neutral, Electron and Magnetic field’를 축약한 이름으로, 우주에 떠도는 이온·전자·중성자 등의 입자 검출과 지구 근접 공간의 자기장 변화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소형 입자측정기인 ‘스타인(STEIN)’을 개발해 시네마에 탑재했다.

시네마의 크기는 가로 10cm, 세로 10cm, 높이 30cm이며 무게는 3kg이다. 연구에 참여한 진호 교수는 “기존의 거대한 인공위성을 반도체 칩 하나의 크기로 줄인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서 “시네마는 입자측정기와 자기장측정기를 동시에 탑재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최첨단 인공위성”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시네마 2, 3기 발사에 성공하면, 경희는 3개의 초소형 인공위성이 지구 저궤도 상공에서 보내오는 전방위·전지방시(경도) 정보를 동시에 관측, 더 정확한 정보를 축적하며 우주탐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된다.

연구 책임자 이동훈 교수(우주탐사학과)는 “경희가 달 궤도 우주탐사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시네마 2, 3기를 발사한 뒤 3~4년간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직접 달까지 가는 위성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 궤도 우주탐사 개발’ 프로젝트는 세계의 여러 권위 있는 연구 기관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그에 따라 참여 학생들은 해외 학자들의 통찰력과 우주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행성천문학·물리학·컴퓨터공학·기계공학·전자전파공학 등이 융합된 과학기술 연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2013 QS 아시아대학평가, 30위권 진입

국내 종합대학 5위, 학술문화 진흥 위한 6년간의 노력 결실  
2010년 대비, 학계 평가 49계단, 졸업생 평판도 62계단 상승



2013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경희는 35위(국내 7위, 종합대학 5위)를 차지했다. 경희는 연구·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학계 평가와 졸업생 평판도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지난 5년간 639명의 교수를 신규 임용하고 다양한 연구지원 제도를 확대·도입하며 학술 역량을 강화해 온 경희가 '2013 QS 아시아대학평가'를 통해 연구와 교육의 질적 성장을 재확인했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전문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와 조선일보가 공동 실시한 '2013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경희는 지난해보다 6계단 오른 35위를 차지했다. 국내 대학 중에서 전체 7위(종합대학 5위)에 해당하는 순위다.

## QS 아시아대학평가,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

경희는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2010년 62위를 기록한 뒤, 매년 20계단, 1계단, 6계단 올라 올해 처음으로 30위권에 진입했다. QS 세계대학평가에서 5년간(2007~2011년) 259계단 뛰어올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

장을 이룬 경희의 성장세가 QS 아시아대학평가 결과에도 반영된 것이다.

## 학계 평가, 2011년 47계단 수직 상승 최근 3년간 상승세 지속

이번 평가에서 경희는 연구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학계 평가와 졸업생 평판도의 상승이라는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다. 학계 평가의 경우, 경희는 2010년 97위에서 2013년 48위로 상승했다. 경희 졸업생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평판도 역시 같은 기간 113위에서 51위로 크게 높아졌다.

학계 평가는 전 세계 학자 2만 8,136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신의 전공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는 아시아대학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점수를 매겨 평가됐다. 학계 평가에서 경희는 지난해 50위에서 48위로 2계단 상승했다. 학계 평가 부문에서 2011년 47계단 수직 상승하며

50위에 오른 경희대는 지난해에도 같은 순위를 차지한 바 있다.

## 졸업생 평판도, 30계단 상승

경희는 전 세계 기업 인사 담당자 7,708명이 참여한 졸업생 평판도 조사 결과, 지난해(81위)에 비해 30계단 상승한 51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기업인들이 경희의 높은 교육 수준과 경희대 졸업생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졸업생 평판도는 '우수한 직원의 출신 대학을 꼽아 달라'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국내 대학평가에서도 경희는 명성과 관행적 통념 등의 영향으로 잘 바뀌지 않는 경향이 있는 평판·사회진출도가 상승한 바 있다. 과거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 순위에서 경희대는 2008년 10위, 2009년 8위, 2010년과 2011년에 7위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한 반면, 평판·사회진출도는 2008년 10위, 2009년 9위, 2010년과

2011년 10위로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종합 순위가 2011년보다 한 계단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판·사회진출도는 2계단 상승한 8위에 올랐다. 학술문화 진흥을 위한 노력의 결과, 경희대학교에 대한 사회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풀이된다.

**정년연장 제도 도입 등  
학술 역량 강화 노력의 결실**

올해 아시아대학평가에서 경희는 지난 6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학계 평가와 졸업생 평판도 순위 상승은 경희의 학술적 탁월성과 높아진 위상을 말해준다.

학계 평가와 졸업생 평판도는 단기간 집중 투자로 성과가 나타나는 지표가 아니다. 2007년부터 경희는 연구와 교육의 탁월성을 추구하며,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국내외 석학, 거장, 대가를 포함한 우수 교원도 적극 영입했다. 지난 5년간 전임교원 수는 1,213명에서 1,485명으로 늘었고 우수 외국인 교원은 같은 기간 74명에서 15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경희는 국내 대학 최초로 정년연장과 중신임용 제도를 도입하며 연령 제한이 없는 학문 활동, 자유로운 학술 교류가 이뤄지는 학술문화를 지향하는 한편, 학문을 향한 구성원의 열정과 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왔다. 전공·계열·개인별 맞춤형 연구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후마니타스칼리지를 통한 교양교육의 혁신, 융복합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학습지원체계를 개선했다. 학술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자율운영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등 행정체계의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국제논문 발표, 5년간 2배 이상 늘어**

학술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적·제도적·행정적 차원의 지원은 학술적 성취로 이어졌다. 경희는 지난해 9월 초소형 인공위성 '시네마(CINEMA) 1기'를 우주로 발사하

는 데 성공했다. 현재는 시네마 2기와 3기 개발·제작을 마치고 발사를 앞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경희가 초소형 인공위성(큐브셋·CubeSat)을 개발해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우주탐사 계획이다. 초소형 인공위성 3기가 동일 목적으로 우주공간 탐사에 활용되는 것은 세계 최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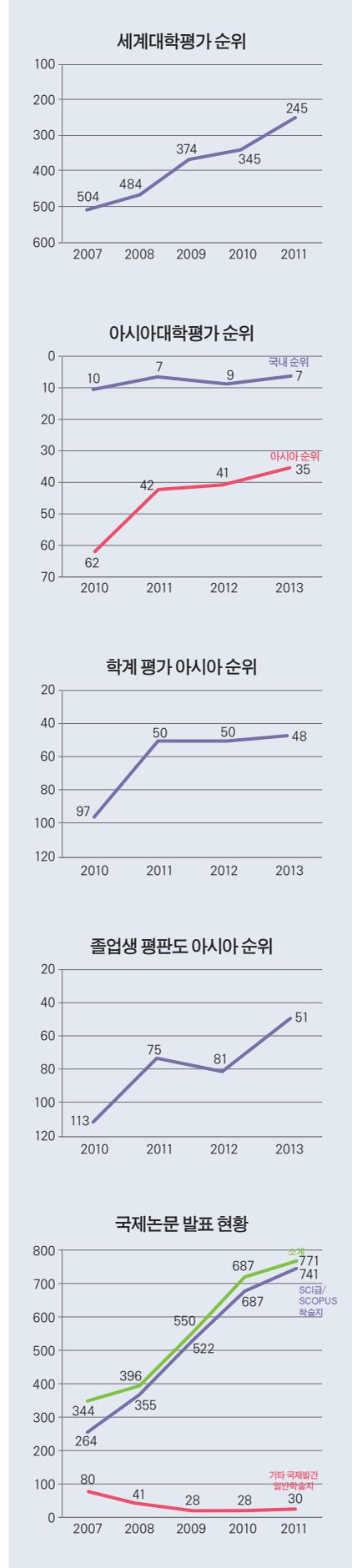
국제논문 발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의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인 Scopus, SCI급 논문 등 경희의 국제논문 발표는 2007년 344편에서 2011년 771편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Scopus에 2007~2011년 5년간 등재된 논문 수에서 경희는 상위 50개 기관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엘스비어 코리아(Elsevier Korea)는 <Research Trends & Performance(vol.4)>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하고 '경희대의 논문 성장률이 가장 눈에 띈다'고 발표했다. 경희는 2011년부터 <네이처(Nature)>, <사이언스(Science)>, <셀(Cell)>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논문을 발표하는 횟수도 늘었다.

QS 아시아대학평가의 연구 부문 정량 지표가 최근 5년간의 실적을 누적 평가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최근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가 상승하고 있는 경희는 향후 연구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6개국 457개 대학 대상으로 평가**

QS 아시아대학평가는 아시아 고등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는 16개국 457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됐다. 평가 항목은 연구(60%), 졸업생 평판도(10%), 국제화(10%), 교육 여건(20%) 등 4개 영역, 9개 지표다.

4개의 평가 영역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연구 부문은 학계 평가(30%), 교원당 논문 수(15%), 논문당 피인용 수(15%) 등 3개 지표로 구성된다. 국제화 영역 평가 지표는 외국인 교원 비율(2.5%), 외국인 학생 비율(2.5%), 국내로 온 교환학생 비율(2.5%), 해외로 간 교환학생 비율(2.5%) 등 4개다. 교육 여건은 교수 대비 학생 수 비율로 평가가 이뤄진다.



# 경희 로스쿨, 변호사시험 2년 연속 1위

응시자 52명 중 51명 합격, 작년에는 100% 합격률 기록  
실무 능력 높이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엄정한 평가 시스템 운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012년 전국 로스쿨 인증평가'에서도 25개 대학 중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경희 로스쿨은 올해 치러진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52명의 졸업생 중 51명이 합격, 응시자 대비 합격률 98.1%로 전국 최고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로스쿨 첫 졸업생 50명 전원이 합격하는 성적을 거뒀다.

### 이론과 실무 결합한 교육으로 우수한 법률전문가 양성

경희 로스쿨이 전국 최고의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엄정한 학사관리, 대폭적인 연구 지원의 결과로 분석된다.

박균성 로스쿨 원장은 “수업만 충실히 따라가도 우수한 법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말했다. 경희는 ‘2012년 전국 로스쿨 인증평가’에서 ‘인증’

을 획득하고, 8개 세부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25개 대학 중 최상위권을 기록한 바 있다.

경희 로스쿨은 과거 법과대학 시절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은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소장(訴狀) 작성 등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기록형 시험’에 대비, 교수들은 별도 교재를 만들어 수업의 충실도를 높이고 있다. 교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무 과

목에 활용할 교육용 사건 기록을 연구 업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건 기록은 등재지 국내 학술논문 1편의 30%로 평가된다.

경희 로스쿨의 ‘기록형 교육’은 직접 손으로 옮겨 적는 필사(筆寫) 교육에서 타 대학과 차별성을 지닌다. 학생들은 그날 배운 부분의 모범답안을 필사하며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암기하며 이해도를 높인다. 정형근 로스쿨 부원장은 “모범답안 필

### 제1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순위	대학	합격자/응시자(명)	합격률(%)
1	경희대	50/50	100
	아주대	41/41	100
3	고려대	98/99	99.0
5	서울대	116/119	97.5
7	성균관대	99/103	96.1
11	연세대	93/101	92.1

### 제2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순위	대학	합격자/응시자(명)	합격률(%)
1	경희대	51/52	98.1
2	연세대	101/104	97.1
3	중앙대	39/42	92.9
4	성균관대	100/110	90.9
7	고려대	100/114	87.7
9	서강대	34/41	82.9

사는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문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글로벌 기업법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기업법무를 특성화한 교육과정도 경희 로스쿨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세계적 수준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경희는 통상법무·금융법무·기업조세법무·IT&IP법무 등 4개 트랙 이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로스쿨과 협약을 맺어 화상강의·특강 등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해외 대학에서 연수하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해외 법률 실습 과정(KHLS Study Abroad Program)'도 운영하고 있다.

모든 로스쿨의 학생 평가는 상대평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성적 평가 과정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희는 엄정한 학사관리를 위해 독자적인 '시험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시험용 ID제'를 도입했다. 학생은 답안지에 자신의 이름 대신에 학교의 전산시스템에서 추출한 시험용 ID 스티커를 부착한다.

이에 따라, 교수는 성적을 모두 입력하기 전까지 답안 작성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학생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한 평가가 가능하다. 박균성 로스쿨 원장은 "시험용 ID제를 실시해 공정한 채점이 이뤄지고 성적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 국내 최고의 로스쿨 도약이 목표

경희 로스쿨은 2009년 출범 당시부터

국내 '최고 명문'을 목표로 설정했다. 모든 대학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만큼 탁월한 교육과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면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공유했다.

그 같은 노력의 결과, 경희 로스쿨은 변호사시험에서 2년 연속 최고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졸업생들은 법무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박균성 원장은 "법조인을 목표로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지난 성취에 따른 안일함을 경계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현장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법조인을 양성해 '경희 로스쿨이 최고'라는 사회적 평판을 쌓는 동시에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로스쿨의 학술문화 "경쟁 아닌 협력"

튜터제·스터디그룹 통해 선후배·동기 간의 협동정신 강화  
비법학 전공 입학생 증가 추세, 변호사시험 합격도 2배



경희 로스쿨은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대학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은 모의법정.

경희 로스쿨의 교육 탁월성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의 두드러진 활약에서 입증된다. 지난해와 올해 수석으로 졸업한 김주연(09학번) 동문과 이용정(10학번) 동문은 각각 한약학과,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출신의 비법학 전공자다. 김주연 동문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이용정 동문은 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비법학 전공자는 35명(68.6%)으로 법학 전공자(16명)의 2배가 넘는 다. 경희 로스쿨에 입학하는 비법학 전공자의 수도 계속 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경희 특유의 학술

문화와 제도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경희는 소통과 이해, 협력과 공감의 대학문화를 추구한다. 로스쿨 역시 경희 고유의 학술문화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다. 박균성 로스쿨 원장은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경쟁보다는 서로 돕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는 기수별로 2~4명의 학생과 개별적인 심층면담을 꾸준히 진행해 교수·학생 간의 돈독한 상호관계를 유지한다. 학생들은 튜터제를 통해 학습 노하우를 공유하며 선후배·동기 간의 일체감을 강화하고 있다. 튜터가 된 선배는 후배들의 공부를 도울 뿐 아니라 진로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을 지도한다. 동기 간에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튜터로 임명해 스터디그룹을 이끌게 한다.

법학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함께 묶어 스터디그룹을 형성하기도 한다. 최광준 로스쿨 부원장은 "전공 지식의 틀에 갇히지 않은 비법학 전공자들이 창의적 발상을 내놓기도 한다"면서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희는 비법학 전공 학생들이 교과과정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프리 로스쿨' 과정도 운영한다. 정식 학기가 시작하기 전 4주 동안 개강하는 프리 로스쿨을 통해 학생들은 헌법, 형법, 민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등 기초 지식을 쌓는다.

# 총장과 학생의 독서토론, “스무 살, 함께 상상하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스터디그룹 ‘아레테’ 북토크에 조인원 총장 초청  
취업 문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조언하며 ‘성찰적 삶,’ ‘자기 창조적 삶’ 강조



후마니타스칼리지 스터디그룹 '아레테(Arete)'가 개최한 북토크 '스무살, 함께 상상하다'에 초청된 조인원 총장은 '인간·정치·문명'을 주제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스터디그룹 ‘아레테(Arete)’가 지난 6월 5일 북토크 ‘스무 살, 함께 상상하다’를 개최했다. 학생들의 자생적 스터디그룹 아레테는 2011년 3월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설립된 후 중핵교과 수강생들의 제안과 대학 지원 아래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학생 스스로 스터디에 참여하고 모임을 운영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학술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북토크 역시 독서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들이 기획했다. 지난 2월 열린 조인원 총장과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생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총장님과의 토론’을 제안했다. 조인원 총장은 학생들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북토크는 사전에 텍스트를 공지해 참가자들이 관련 내용을 공유한 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북토크에 앞서 학생들은 조인원 총장이 선정한 로베르트 옹거의 저서 <주체의 각성(The Self

Awakened)》, 영화 <레미제라블>,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의 <필라델피아 자유메달 수상 연설문>을 읽고 행사에 참여했다. 북토크는 6월 5일 오후 6시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네오누리에서 3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소통과 공감, 사회적 연대로 현실을 극복하자”

이날 북토크에서 많은 학생들이 취업과 진로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김영빈(물리학과 12학번) 학생은 “취업 문제만으로도 고민이 많은 우리에게 사회는 자기혁명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현재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조인원 총장은 자기성찰의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학생들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인간은 무한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나 너머 나,’ ‘또 다른 나’의 여정을 확인해가는 존재”라면서 “일상의 무게와

‘모름’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번민과 성찰을 거듭하는 단계가 ‘젊음의 시기’라고 말했다. “나와 타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하고, 성찰적 의식을 만들어가는 것은 고통스런 과정이지만, 결국 본인의 몫”이라고 강조한 뒤, “성찰 과정에 다양한 사상과 철학, 위대한 저서와 연설, 탁월한 시와 소설 등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취업이라는 높은 문턱을 눈앞에 둔 20대는 성찰적 의식을 고민할 여유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유현기(사학과 13학번) 학생은 ‘현실적 조언’을 요청했다.

조인원 총장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당장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중요해지는 것은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서는 일”이라고 전한 뒤, “나와 우리가 공적 실천의 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감과 합의’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

요하고, 바로 그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또한 “그 정치는 결코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려는 의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로베르토 웅거 교수의 저서 <주체의 각성>을 소개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삶을 성찰해보자”고 조언했다. 웅거 교수는 책에서 당대의 구조는 좀처럼 변하지 않지만, 개개인이 각성을 통해 실현하고 공감하는 ‘초월과 연결’의 연쇄 고리를 만들어간다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문명 발달의 요인은 ‘이타적 유전자’

그러나 “사회적 공감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총장님의 생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박진현(경영학과 13학번) 학생은 “사람이 가진 이기적 본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지만, 이타성이 없다면 이기성도 갖기 어렵다”는 것이 조인원 총장의 답변이었다. “우리 사회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이기적 존재를 결코 오랜 기간 방치하지 않는다”며, 그것이 ‘역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 1등의 특권적 위치’를 어떻게 보느냐는 학생의 물음엔, “1등을 한다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지만, 1등한테만 특별한, 공감할 수 없는 대우가 주어진다”며 그것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답했다. 조인원 총장은 “경쟁 우선의 ‘불안 시대’를 넘어 개인적 성취의 공동체적 합의를 중시하고 ‘공감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진화생물학의 거장 에드워드 윌슨 하버드대 교수의 새로운 학설을 소개했다. 윌슨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저서 <지구의 정복자(The Social Conquest of Earth)>에서 ‘진화의 흐름이 이기적 종족 선택보다는 공동체 보존에 도움이 되는 이타적 행동을 도모하는 집단을 선택한다고 주장했다. 이 학설은 40년 전 자신이 발표하고 체계화해온 연구를 뒤엎는 것이었다.

조인원 총장은 “결국 소통과 공감이 진화 과정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한 뒤, “더 나은 나, 더 나은 문명과 정치를 위해 우리

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나와 타자, 개인과 공동체의 생존과 공동 번영이 담보되는 공감과 합의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더 나은 인간과 세계, 문명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인간·문명·정치를 성찰하고, 책 읽는 방법에도 대한 생각도 나왔다. 조인원 총장은 “<레미제라블>을 읽으면서 평생 제도와 구조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온 자베르 경감이 다리 위에서 뛰어내릴 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 무엇을 두려워했을지, 또 자신의 신념과 성찰, 물리적 죽음을 동시에 초래한 제도와 구조의 모순, 그리고 또 다른 인간적, 사회적 미래의 가능성을 많이 생각했다”고 말했다.

### “대학의 사명은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계 건설”

이날 북토크는 대학의 역할, 학문하는 자세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조인원 총장은 “인간 수명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배움은 평생에 걸쳐 필요한 과정”이라며 “평생 학습, 자기 성찰, 자기 창조의 노력”을 강조했다. “대학은 더 나은 자아와 세계를 성찰하고, 더 나은 인간과 문명을 위해 학술과 실천의 결합을 지향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교수와 학생이 서로 배우고 학습하는 대학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면서 “항상 ‘미흡한 나,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며, ‘더 큰 배움의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경희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북토크에 참가한 김정현(컨벤션경영학과 09학번) 학생은 “개인의 일차원적인 영달보다 좀 더 큰 세계, 인류와 문명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총장님의 생각을 직접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솔휘(사학과 10학번) 학생은 “소통·공감·상생에 대한 의미를 숙고하고, 틀에서 벗어난 사고를 확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교육역량 강화사업 ‘최우수 사례’ 선정

###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생 자유프로젝트 ‘아레테’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생들의 자생적 프로젝트 ‘아레테(Arete)’ 프로그램이 ‘2012년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 우수 사례’ 중 학생역량 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아레테(Arete)’는 2011년 3월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된 후, 중핵교과 수강생의 요청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교양심화 프로그램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월 18일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학생역량·취업역량·교육인프라 등 3개 부문 최우수 및 우수 사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세 부문에 대한 평가에서 최우수 사례가 선정된 것은 학생역량 부문이 유일하다.

아레테는 고대 그리스어로 ‘탁월성’을 뜻한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탁월성’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공동체 성원’을 육성한다는 교육 목표를 갖고 있다. ‘아레테’ 참가 학생들은 독서 및 토론 활동을 통해 경희가 지향하는 인재상인 ‘세계인, 창조인, 문화인’의 기초 소양을 쌓고,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구현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교양의 높이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런 맥락에서 ‘아레테’는 경희의 창학이념과 전통에 부합하는 자율적 학술활동이다. 교육 수혜자인 학생 스스로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대학교육 발전과 자기주도적 학습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대학도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레테’는 독서토론·시사토론 외에도 가면을 쓰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토론하는 토크몹(Talk Mob, Talk와 Flash Mob의 합성어), 템플스테이, 북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레테의 스터디 모임.

# 경희의 미래기술, 과학기술의 미래 개척

기계공학과 정인화·이원구 교수,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최석원 교수  
 〈네이처〉 〈애널리스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등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 게재



기계공학과 정인화(왼쪽)·이원구(가운데) 교수,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최석원(오른쪽) 교수 연구팀의 미래기술 연구 논문이 각 분야의 권위있는 학술지에 게재됐다.

**경**희가 미래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해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계공학과 정인화 교수와 이원구 교수,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최석원 교수 등이 그 주인공이다.

정인화 교수 연구팀은 곤충의 눈을 모방해 160도의 넓은 각도에서도 이미지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 ‘초광각 디지털카메라’를 개발했다. 연구 결과는 〈네이처(Nature)〉 5월 2일자에 발표됐다.

이원구 교수 연구팀은 세포 배양 및 변화 측정에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세포 이미징’ 기법을 새로 개발했다. 연구 성과는 영국 왕립화학회에서 발행하는 130여 년 전통의 분석연구 분야 학술지 〈애널리스트(Analyst)〉 6월호 속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최석원 교수 연구팀은 의료기구·디스플레이 등에 활용되는 레이저 발진 장치의 소형화를 가능케 하는 ‘다파장 액정 레이

저’를 개발했다. 연구 결과는 재료과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 3월 11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 곤충 눈 모방한 초광각 디지털카메라

기계공학과 정인화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초광각 디지털카메라’는 목을 돌리지 않고도 사방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곤충의 눈을 거의 완벽하게 모방한 것이다. 곤충의 눈은 수백~수만 개의 홑눈이 합쳐진 반구 형태의 겹눈 구조로 이뤄져 160도 이상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정인화 교수를 포함해 미국 일리노이대 존 로저스 교수, 송영민 박사후연구원(Post Doctor) 등 한국·미국·중국 과학자 14명으로 구성된 ‘일렉트로닉 아이 프로젝트(Electronic Eye Project)’ 공동 연구팀은 이런 구조와 기능을 카메라 렌즈에 재현, 160도 이상 화각에서도 일그러짐

없는 이미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실리콘 재질의 투명 고분자를 이용해서 제작한 ‘늘어나는 마이크로 렌즈(홀눈)’를 조합하고,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이들 각각의 렌즈를 ‘늘어나는 이미지 센서’로 연결, 곤충의 겹눈과 같은 반구 형태의 초광각 렌즈를 개발했다.

정인화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카메라에는 지름 0.8mm 초소형 렌즈 180개가 사용됐다. 각각의 렌즈가 얻은 정보를 종합해 이미지 왜곡 없이 상이 맺힌다. 무한 심도 기능을 갖춰 피사체와 카메라 간의 거리에 상관없이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이 렌즈는 디지털 카메라뿐 아니라 군사·보안·의료 등 다양한 방면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렌즈가 작고 가벼워 정찰을 위한 초소형 무인 비행 로봇, 초소형 광각 내시경 개발이 가능하다.

### 차세대 '세포 이미징' 기법

기계공학과 이원구 교수 연구팀은 '차세대 세포 이미징' 기법을 개발, 세포 연구의 새 가능성을 열었다.

세포 이미징은 세포의 변화 과정을 촬영하는 것으로, 실험실에서 장기간 세포를 배양해 그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이때 동일한 촬영 위치에서 세포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포를 배양하는 인큐베이터와 현미경을 오가는 과정에서 최초 촬영 위치를 정확히 찾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 세포 위치가 뒤틀어지거나 관찰 각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다. 연구팀은 눈에 보이는 현실세계에 가상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증강 현실' 원리를 이용해 연구자에게 세포의 최초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미세 패턴'을 개발, 기존 세포 이미징의 한계를 극복했다.

차세대 세포 이미징 기법은 이원구 교수가 자체 제작한 '미세 패턴화된 증강 현실 태그'와 'vvvv'라는 소프트웨어 두 장치를 통해 이뤄진다. 미세 패턴을 세포 배양 장치 하단 바깥쪽에 붙이면 태그가 최초의 세포 배양 위치를 기억한다. 이 태그를 읽는 장치가 'vvvv'로 프로그램된 소프트웨어다. 연구자는 이동된 세포의 위치 정보를 증강현실로 전달받아 최초 이미지 촬영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심 이미지 영역에 대한 정확한 세포 이미징을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

이원구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기법으로 값비싼 세포 이미징 장비 없이도 장기간 세포 이미징을 더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 뒤, "이번 연구는 기본적인 세포 배양에는 물론, 랩온어칩(Lab-on-a-Chip: 칩 위의 실험실) 장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세대 세포 이미징 기법의 상용화를 위해 이원구 교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세포 이미징과 이미지 프로세싱, 분석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 방현우 교수 연구팀이 공동 참여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신진연구자장비사업 지원으로 수행됐다.

### 소형화 가능한 '다파장 액정레이저'

정보전자소재공학과 최석원 교수 연구팀은 1개의 발진 장치로 여러 파장의 레이저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액정레이저를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소자 하나는 한 가지 파장의 빛을 발생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파장의 레이저를 얻으려면 여러 개의 발진 장치가 필요하다. 이번에 개발한 액정레이저는 온도 조절을 통해 빛의 파장을 조절할 수 있고, 기존 레이저 발진 장치에 필수적이었던 거울(빛 증폭 장치) 없이도 레이저를 발진할 수 있어 소형화가 가능하다.

레이저 발진 장치는 가늘고 긴 공진기 양쪽에 빛을 증폭하는 거울이 달려 있고, 그 사이의 공간은 고체·액체·반도체 등의 레이저 매질로 채워진다. 연구팀은 3차원 나노 구조의 '블루페이즈(blue phase)'를 활용, 새로운 레이저 매질을 개발했다.

블루페이즈는 응답 속도가 빨라 차세대 액정 재료로 주목받고 있지만, 온도가 섭씨 1~2도만 변해도 액정 상태를 잃게 돼 액정레이저의 장점 중 하나인 파장 가변성이 20나노미터(nm,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 미만으로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최석원 교수팀은 섭씨 25도 이상의 온도 변화에도 액정 상태를 유지하고, 100nm 이상의 파장 가변성을 이끌어내는 블루페이즈 혼합물을 개발해 이를 극복했다.

최석원 교수는 "자체 개발한 블루페이즈 혼합물의 광결정(photonic crystal)을 이용해 거울이 필요 없는 공진기를 갖는 레이저 발진 장치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번에 개발한 액정레이저는 의료기기, 홀로그래피, 디스플레이 등에 활용되는 레이저 발진 장치를 소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원 나노 구조의 블루페이즈를 활용한 액정레이저의 상용화를 위해 최석원 교수팀은 레이저를 발진시킬 때 요구되는 에너지를 낮추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송명훈 울산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으로 추진됐다.

## 경희대 MMT, '국제표준' 채택

### 고화질·대용량 콘텐츠 멀티미디어 서비스 가능

지난 4월 22~2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멀티미디어 부호화 국제표준화 회의(ISO/IEC JTC1/SC29)'에서 경희대학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공동 개발한 차세대 미디어 전송 기술 'MPEG 미디어 트랜스포트(MMT)'가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한국 기술이 세계 멀티미디어 시장을 선도할 발판이 마련됐다.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미디어 시장은 유무선 통합 인터넷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 전송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MMT는 디지털방송, 전자상거래, 게임 및 영화산업 등 차세대 디지털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미래 기술이다. 인터넷 이용자는 끊김 현상 없이 고화질 영상 시청이 가능하며, 각 방송 채널들도 대용량 콘텐츠를 유연하게 전송할 수 있다. MMT 연구에 참여한 전자·전파공학과 서덕영 교수는 "기존에 사용돼온 MPEG-2는 디지털 텔레비전에 기반한 기술을 무리하게 인터넷 환경에 적용했기 때문에 한계가 많았다"고 설명한 뒤, "MMT는 어떤 상황에서든 원활한 멀티미디어 전송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계는 MMT 기술이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됨에 따라 향후 한국 기업들이 스마트 텔레비전, 스마트폰 등 기기 개발과 판매에서 더 빨리 국제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덕영 교수는 MMT의 활용성에 대해 "일반 방송과 인터넷 방송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하이브리드형 스마트 텔레비전과 초고화질 텔레비전(U-HDTV)은 물론, 가전제품과 인터넷이 융합된 ALL-IP 망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MMT 기술을 개발한 서덕영 교수(왼쪽).

# 대학·연구기관·지역사회 협력, '홍릉 도시공동체' 건설한다

제3회 홍릉포럼, '도시문명의 미래' 주제로 개최



홍릉포럼 참가자들은 '도시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홍릉 일대의 미래 건설 방안을 모색했다.

제3회 홍릉포럼이 지난 4월 25일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됐다. '홍릉, 도시문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한계에 이른 개발 위주의 재개발사업에 관해 성찰하고, '도시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홍릉 일대의 미래 건설 방안을 모색했다.

## '홍릉 글로벌 교육연구단지 구상안'

조인원 총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발표되는 두 가지 주제, 홍릉을 세계적인 교육연구단지로 조성하는 구상안과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를 지향하는 도시문명의 미래 건설은 경희대학교가 오랜 기간 상상하고 실천으로 옮기기를 희망한 주제"라고 말

한 뒤, "홍릉포럼이 대학과 연구기관, 지역 사회, 시민이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와 인류 사회, 그리고 문명의 미래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프로젝트가 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KIST 하성도 기술정책연구소장은 '홍릉 글로벌 교육연구단지 구상안'을 발표했다. 그 구상안에는, 회기로를 중심으로 테마거리를 조성해 동북쪽에는 문화와 지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문화존(zone)을, 서쪽에는 융합연구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기술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도시 재생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필요

한편, 경희대 사학과 박진빈 교수는 인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개발 성과만을 홍보하는 도시재개발의 문제를 지적한 뒤, "지역주민과 환경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주민과 지역에 기여하는 도시 재생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주민·대학·연구기관이 소통하는 자발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민과 지역에 기여하는 상생의 전략을 찾자"고 제안했다.

홍릉포럼은 경희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한국외국어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KIST 등 홍릉 인근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미래지향적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2년 7월 출범시킨 모임이다.

## 아시아 대학 '학술문화의 미래' 모색

2013 HEPA 포럼, 경희대·홍콩과학기술대 공동 개최

전세계 고등교육 환경의 혁명적 변화 속에서, 아시아 대학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탁월한 학술문화를 창출할 것인가. 지난 4월 16~17일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2013 HEPA(Higher Education Planning in Asia) 포럼'은 이 문제에 관해 모색하는 국제적 학술 모임이었다. 경희대학교와 홍콩과학기술대학교가 공동 개

최한 이번 포럼 주제는 '탁월함을 향해: 기획에서 현실까지(Towards Excellence: From Plans to Reality)'였다. 이날 포럼은 서울·뉴욕·싱가포르 등 3개 도시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돼 글로벌 온라인 교육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는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를 실감케 했다. 세계 명문대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하

는 코세라(Coursera)의 공동 설립자 앤드루 응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온라인 상에서 배움과 가르침의 공동 참여가 이뤄지는 가운데 지역·인종·종교를 뛰어넘는 학술적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희대 남순건 대학원장은 "대학은 구성원의 학술적 열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축적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경영대 피아오 흥 심 부총장은 "대학들이 전략적 계획을 적용하고 유지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학 임상인프라 구축 추진 국내 최대 규모 연구비 지원

경희대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 등 설립해 독자적 연구 수행



경희는 '한의학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연구기관 선정으로 특화된 공간·시설·서비스를 구축한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이 독자적인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5월 16일 보건복지부 국책과제인 '한의학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향후 5년간 정부로부터 최대 50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역대 한의학 관련 연구 지원사업 중 최대 규모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한의학 임상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가로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서도 사업이 진행되는 5년 동안 5억 원을 지원한다.

연구과제 책임자인 사상체질과 이의주 교수는 "경희의 연구기관 선정은 국내의 열악한 연구 환경에서도 수많은 SCI급 임상연구 논문을 발표한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 교수들의 노고가 인정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구축될 임상인프라가 경희대학교한방병원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한의학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학에 특화된 연구·교육기관 설립

사업 선정으로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연구전용 입원병실과 첨단 시설을 갖춘 한의학임상시험센터 설립 △아카데미 CRO 연구지원기관(연구책임자 : 신경정신과 조성훈 교수) 설립 △연구자, 연구책임자, 코디네이터 등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연구책임자 :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장보형 교수) 설립 △다국가 다기관 임상연구(연구책임자 : 사상체질과 이준희 교수)와 한의학 임상연구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학 임상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은 5년 동안 2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1단계 사업은 3년간 진행되며, 1단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임상 기반을 마련하는 2단계 사업이 2년간 추진된다.

## 경희·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류협력 협약 체결

학술·실천·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

지난 4월 12일 경희대학교는 유네스코(UNESCO) 한국위원회와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학술·실천·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0여 년 동안 경희는 농촌봉사, 의료봉사, 세계평화운동, 시민교육 등을 통해 대학의 공적 책임을 다해왔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NGO 등과 협력해 기아, 질병, 인권, 환경과 같은 지구적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조인원 총장은 2011년 9월 유엔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의 기조연설에서 "평화는 정치적 노력, 외교적 수단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면서 "정치와 외교의 근간인 인류의식의 '초월적 역량'이 우리 앞에 뿌리내릴 때 평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한 뒤, 공평과 풍요, 소외와 포용, 고통과 연민의 간극을 좁혀가는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경희는 이번 유네스코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세계평화를 위한 고등교육과 사회공헌 활동을 더 활발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은 경희대학교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보유 중인 자원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이를 활용해 구체적인 실천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양 기관은 △국제(학술)회의의 공동 주관 및 진행 △교육·과학·문화 관련 프로그램 상호 교류 및 개발 △국제기구 진출·탐방 등 대학생 국제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협력 △교육 및 인적자원을 활용한 경희대학교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유네스코 관련 강좌 개발 및 전문가 교류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희는 지구적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캠퍼스 복지환경 개선, '문화 창조'의 공간 창출

국제캠퍼스 교내식당, 소통·화합의 '커뮤니티형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예술·디자인대학관, 북카페·베이커리카페 등 신개념 편의시설 신설



지난 3월 4일 재개장한 국제캠퍼스 학생식당은 학술·문화공간으로 구성됐다.

서울과 국제캠퍼스 환경 개선을 통해 구성원 복지가 더욱 향상되고 있다. 학생식당과 교직원식당 리모델링이 그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밖에도 복합생활문화 공간 조성, 화장실 개선 등이 이뤄졌다.

경희는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 9월부터 교수·학생·직원으로 구성된 '교내식당 개선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운영하고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첫 사업으로 2012년 3월 서울캠퍼스 청운관 식당을 재개장했으며, 9월에는 국제캠퍼스 공학관 학생식당과 서울캠퍼스 삼의원 기숙사식당 리모델링을 마쳤다. 올해 추진된 세 번째 사업은 국제캠퍼스 교내식당 개선이다.

## 교내식당에 세미나실·테라스 배치

지난 3월 4일 재개장한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내 학생식당과 교직원식당은 단순한

리모델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식당 개념을 탈피해 '커뮤니티형 복합 문화공간'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학생식당은 식사 공간 리모델링과 함께 7실의 세미나실과 외부 테라스를 배치해 학습과 커뮤니티 활동, 세미나 및 학술행사, 소규모 모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식당 테이블에 탈착식 스탠드를 설치해 식사시간 외에는 면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직원식당에 개인 공간 2실을 확보해 소통과 교류의 기능을 추가했으며, 벽면에는 경희의 역사를 담은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식당과 교직원식당 사이를 벽으로 차단하지 않고 두 공간을 이어주는 세미나실을 배치해 공간의 연계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쾌적한 식사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경희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공간, 학술과 문화가 창조되는 공간,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식당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해 9월 18일 식음료환경개선사업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시작했다. 식음료환경개선사업추진위원회는 교수·학생·직원 대표를 위원으로 두고 있다.

## 예술·디자인대학관 로비, 서울캠퍼스 화장실 환경 개선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관 로비에는 지난해 5월 북카페가 신설된 데 이어, 올해 3월 18일 베이커리카페가 새로 들어섰다. 구성원이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 휴식과 함께 자유롭게 공부하며 디자인을 스케치할 수 있는 열린 공간, 디자인 서적이 구비된 열람실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예술·디자인대학관 로비 환경 개선 사업이 이뤄졌다. 예술·디자인대학관 로비를 활용한 편의시설 신설 계획이 수립된 후 수차례의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간 디자인이 확정됐다.

서울캠퍼스 화장실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된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교내 전체 화장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 파손되거나 고장난 시설을 개·보수하고, 모든 화장실에 공간항균기와 탈취세정기를 설치해 위생을 강화했다. 총 476개 화장실에 공간항균기 476개와 탈취세정기 728개가 설치됐다. 공간항균기는 기존의 분사형 방향제와 달리, 공기 중의 박테리아를 살균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다.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설치된 탈취세정기는 세정액을 자동으로 분사해 유해세균을 없애고 방향제 역할도 한다.

경희는 복지시설운영위원회를 통해 구성원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투지와 도전정신 돋보인 경희 스포츠

핸드볼부, 전국중별선수권대회 남자대학부 우승, “조직력과 정신력의 승리”  
체조부, 선수들의 부상 딛고 단체전 준우승, 농구부도 MBC배 대학농구 준우승



핸드볼부가 제68회 전국중별핸드볼선수권대회 남자대학부 우승을 차지했다. 경희대가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8년 만이다.

**핸드볼부**가 제68회 전국중별핸드볼선수권대회 남자대학부 우승을 차지했다.

경희대는 지난 4월 28일 전북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남자대학부 결승에서 전년도 우승팀 한체체육대(한체대)를 만났다. 지난해 대회에서도 결승에서 맞붙어 아깝게 패한 경희대는 그 뒤 ‘2012 핸드볼코리아 전국대학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한체대를 꺾고 우승한 바 있다.

### 핸드볼부, 8년 만에 정상 탈환

이날 경희대는 시종일관 자신감 넘치는 경기 운영으로 한체대를 압도했다. 오상환(스포츠지도학과 12학번) 학생이 10골을 터뜨리고, 정진호(스포츠지도학과 10학번) 학생이 5골을 더하는 등 순조롭게 점수를 채우며 27-25로 승리했다(전반 10-9, 후반 17-16).

경희대가 전국중별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8년 만이다. 김만호 감독은 “선수들의 잦은 부상으로 팀 전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는데 오로지 이기겠다는 의지로 단합한 것이 우승을 이끈 것 같다”면서 “경희의 조직력과 정신력의 승리”라고 말했다. 오상환 학생은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 체조부, 총 10개의 메달 획득

체조부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68회 전국중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에서 경희대는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황수빈(스포츠지도학과 12학번), 남영일(스포츠지도학과 10학번) 학생은 각각 마루와 철봉에서 우승했다. 체조부는 많은 선수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투지를 불태워 끝까지 경기에 최선을 다했다.

### 농구부, 역전·재역전 끝에 1점차 패배

농구부도 제29회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3년 연속 결승에 진출한 경희대의 최종 상대는 고려대였다.

지난해 대회에서 경희대는 60-58로 고려대를 꺾고 MBC배 2연패를 달성한 바 있다. 그러나 3월 8일 경북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올해의 결승에서는 83-84, 1점 차로 패했다.

이날 경기는 역전과 재역전의 반복이었다. 경희대는 전반을 29-26으로 마쳤지만 후반 들어 고려대에 추격을 허용하며 역전에 역전을 거듭했다. 77-74로 동점을 이룬 뒤 연장에 들어가 경기 종료 37초 전 골밑 돌파를 성공시키며 83-82로 앞서나갔다. 그러나 경기 종료 20초 전 고려대에 덩크를 내주며 1점 차로 승패가 갈렸다. 이 대회에서 김영현 학생은 우수상, 김민구 학생은 어시스트상을 수상했다.

# 세계 재즈의 날 기념 'All That Voice' 콘서트

예술·디자인대학관에서 6월 25일까지 열려



경희의 재즈콘서트 '올 댓 보이즈' 무대에 오른 브라질 보컬리스트 발치노 아나스타치오.

2011년 제36차 유네스코총회는 매년 4월 30일을 세계 재즈의 날로 정하고 지난해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첫 행사를 가졌으며, 올해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공식 행사가 열렸다. 유네스코의 공식 초청을 받은 각국의 재즈 뮤지션과 클럽, 협회, 교육기관들이 여러 형태로 행사에 참여한다. 경희는 국내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초청됐다.

경희의 '올 댓 보이즈' 공연은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교수 중심의 '패컬티 콘서트(Faculty Concert)'와 재학생이 주도하는 '로비 콘서트(Lobby Concert)'로 나뉘어 진행됐다.

예술·디자인대학관 A&D홀에서 열린 첫 번째 패컬티 콘서트에는 경희피츠재즈 오케스트라, 브라질 보컬리스트 발치노 아나스타치오,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이우창 교수가 참여했다.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빅밴드' 경희피츠재즈오케스트라는 '스윙의 대부'로 불리는 재즈피아니스트 카운트 베이시(Count Basie) 밴드의 스윙곡을 비롯해 모던재즈, 라틴재즈 등 다양한 곡을 연주했다.

발치노 아나스타치오는 아프리카 전통 악기인 음악용 활 연주와 구음을 통해 아프리카 음악을 들려줬다. 가수 다비치의 강민경 학생은 'Fly Me to the Moon'을 열창했다. 이날 공연은 경희피츠재즈오케스트라, 발치노의 퍼커션(Percussion), 이우창 교수의 피아노 협연으로 마무리됐다.

경희가 유네스코(UNESCO)의 '세계 재즈의 날(International JAZZ Day)' 행사에 초청받아 4월 30일부터 6월 25일까지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관에서 재즈 콘서트 '올 댓 보이즈(All That

Voice)' 공연을 연속 개최했다. '세계 재즈의 날'은 국적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인류의 소통과 평화를 증진하는 원동력으로서 재즈가 지닌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적 기념일이다.

## 조영식 박사 <경희백년 미래메시지>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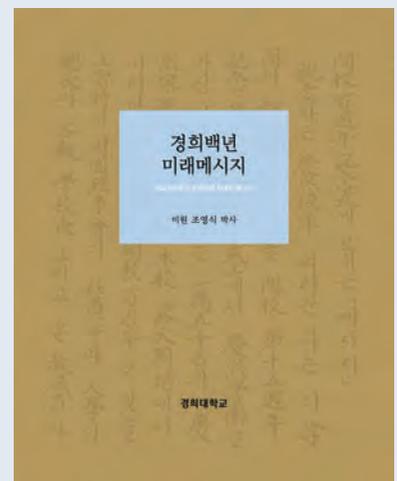
개교 100주년 메시지 통해 '세계적인 대학' 비전 제시

출판문화원은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 서거 1주기와 경희대학교 개교 64주년을 맞아 <경희백년 미래메시지>를 출간했다. 조영식 박사가 지난 1964년 개교 15주년에 발표한 '개교 100주년에 보내는 메시지와 양케이트' 원문을 소개하고 해설을 붙인 책이다.

조영식 박사는 미래메시지에서 "그것(미래비전)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동안 반드시 우리의 뜻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며, 적어도 우리들의 후배인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는 2049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할 후배들이 경희의 비전과 목표를 반드시 이뤄주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경희의 미래비전이 50년 전에 이미 선언적 형태로 제시됐음을 <경희백년 미래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의무·대외협력부총장 취임

정경대학 경제학과 인재육 교수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유지홍 교수, 국제대학 국제학과 정진영 교수가 서울·의무·대외협력부총장으로 취임했다.



안재욱 신임 서울부총장은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로 부임한 후 교양학부장, 연구산학협력처장, 교무처장,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유지홍 신임 의무부총장은 1978년 경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에서 연수했다. 국내 호흡기질환 치료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이사장, 대한내과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정진영 신임 대외협력부총장은 1990년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경희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로 부임한 후 국제·경영대학장, 국제대학장, 국제대학원장, 국제캠퍼스 교무처장을 지냈다.

## 박동석 강동경희대한방병원장, 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



박동석 강동경희대한방병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방주치의로 임명됐다. 2003년 한방 분야 대통령 주치의 제도가 처음 생긴 이래, 경희는 3회 연속 대통령 주치의의를 배출했다. 박동석 병원장은 지난 5월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하면서 주치의 활동을 시작했다.

## 김인한 교수, 대한건축학회 논문상 수상



건축학과 김인한 교수가 2013년 대한건축학회상 건축계획·설계 분야 논문상을 수상했다. 대한건축학회는 1년 동안 발표된 논문 가운데 총 7개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 저자에게 논문상을 수여한다. 김인한 교수가 2012년 9월 발표한 논문 '개방형 BIM 기반 한옥 건축 통합정보시스템 프레임워크'는 연구의 참신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김인한 교수는 컴퓨터 3차원 설계기술 BIM을 한옥에 접목해 쉽고 간편하게 설계·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 장건호·류창우 교수팀, 새로운 뇌 기능 fMRI 기법 개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장건호·류창우 교수팀이 뇌세포 기능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fMRI(기능적 자기공명영상) 기법을 개발했다. 이는 뇌 수술과 치매 조기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신경 및 정신질환 환자의 뇌 기능 분석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Medical Physics) 2013년 2월호에 게재됐으며, fMRI 촬영 영상은 표지사진으로 선정됐다.

## 김종욱 동문,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대상 수상

김종욱(문학석사 01학번) 동문이 계간 <문학동네>가 주관하는 '제4회 젊은작가상'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단편소설 <거리의 마술사>는 2012 문학일보 신춘문에 당선작이다. 심사위원들은 "이야기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 앞으로 또 어떻게 자신만의 미묘한 분위기로 그려내 보일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학동네 젊은작가상은 등단 10년 이내의 작가들이 최근 1

년간 발표한 중·단편소설을 대상으로 매년 7편의 수상작을 뽑고, 그 중 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손보미(문학박사, 06학번) 동문은 올해에도 소설 <과학자의 사랑>으로 젊은작가상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 양하늘 학생, '한국관광홍보 UCC 및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



양하늘(포스트모던음악학과 09학번) 학생이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한국관광홍보 UCC 및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을 차지했다. '90일 동안 세계일주를 하며 대금과 소금을 연주해 한국을 알리겠다'는 그의 홍보계획 제목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딸, 국악인 양하늘'이다. 이외에도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글·전통민요·차 문화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SNS를 통해 사람들을 모아 유명 관광지에서 강강술래·아리랑 합창 퍼포먼스를 펼치겠다는 등의 아이디어도 제출했다.

## 국제학과 학생 11명, '방과후 교육기부 활동' 최우수상

국제학과 학생 11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월'이 교육부의 방과후 교육기부 활동인 '알락달락 행복한 교실' 프로그램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알락달락은 '알아가는 즐거움(樂), 달성하는 즐거움(樂)'이란 뜻으로, 대학생들이 학기 중 일주일에 두 차례 인근 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기부 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젝트 월'은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토론·학습하고, 같은 주제로 다 함께 벽화를 그려 초등학교들에게 환경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 조희숙 퇴직교수, 대학발전기금 약정금 전액 기부



2002년 정년퇴직한 간호과학대학 조희숙 전 교수가 대학발전기금 1,000만 원 전액을 기부했다. 조희숙 전 교수는 "33년간 몸담은 경희대학교와 간호과학대학에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약정한 바 있다. 약정서 작성 후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며 580만 원을 기부했으나 최근에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약정 금액을 채우지 못했다. 조희숙 전 교수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마음의 숙제로 남아 있었다"면서 지난 3월 28일 나머지 약정 기금 420만 원을 기부했다.

## 태권도학과 교수·재학생, 장학금 2,000만 원 기부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와 재학생들이 태권연극 '태왕사신전'의 공연 수익금 2,000만 원을 태권도학과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지난 3월 19일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생회 대표로 참석한 서원철(08학번), 유미나(11학번), 김원정(08학번) 학생은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수익금을 기부해준 선배들에게 감사 드린다"면서 "장학금 기부를 대물림하는 전통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왕사신전'은 태권도와 연극을 접목한 스토리가 있는 태권도 공연으로, 태권도학과 교수들의 자발적 지도 아래 4학년 중심의 재학생들이 매년 연말 무대에 올리고 있다.

## 서지혜 학생, '정부학자금 지원 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서지혜(생체의공학과 10학번) 학생이 제5회 '정부학자금 지원 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며 교육부장관상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장학금 300만 원을 받았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1,600여 명의 대학생이 응모했으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등 9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지혜 학생은 "우연히 지난해 공모전에서 당선된 글을 읽고 감동과 용기를 얻어, 나도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응모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현재 4학년인 그는 1학년 2학기부터 정부학자금,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장학금, 교내 성적우수장학금 등을 받아왔다.



## 디팍 초프라 박사·미네스 카파토스 박사 특강

한의학대학과 SRC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공동 주최로 심신치유의학 분야의 석학 디팍 초프라(Deepak Chopra) 박사와 저명 물리학자인 미네스 카파토스(Menas Kafatos) 박사 초청 특강이 3월 12일 서울캠퍼스 오비스홀 111호에서 열렸다. '우주, 마음과 몸 치유에 대한 과학적 통찰'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 경희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디팍 초프라 박사와 미네스 카파토스 박사는 의학·과학·인문학 등을 아우르는 학제간 소통과 융합을 지향하며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미네스 카파토스 박사는 "한 분야에 국한된 연구로는 질병을 치유하기 어렵다"며 음과 양, 남과 여 등 극과 극으로 보이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태도를 경계했다. "기 치료 같은 동양적인 치료를 할 때 서양 의학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의학은 치료 받는 사람의 의도와도 관련이 있다"면서 "질병을 다룰 때 질병만 볼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의도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2회 독서골든벨 '복을 울려라!' 개최

제2회 독서골든벨 '복을 울려라!'가 5월 16일 서울캠퍼스 오비스홀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3명이 한 팀을 이룬 60팀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독서골든벨은 선정된 책 내용과 관련된 퀴즈 대결을 펼치는 대회다. 올해는 강풀의 <26년 1·2·3>, 박웅현의 <책은 도끼다>, 임승수·이유리의 <세상을 바꾼 예술 작품들>이 선정됐다.

1위는 한의학과 이상화(09학번)·김지수·이지영(10학번) 학생팀이 차

지했다. 국어국문학과 남궁송이·정송·조은(11학번) 학생팀은 2위, 한의학과 김재원·서원주·연나현(11학번) 학생팀은 3위에 올랐다. 1위 팀에는 노트북 컴퓨터, 2위 팀에는 태블릿 PC, 3위 팀에는 전자책이 팀원 전원에게 부상으로 주어졌다. 김지수 학생은 "독서골든벨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그동안 몰랐던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됐다"며 "깊은 경험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 유비쿼터스 IPTV 연구센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수상

실감형 유비쿼터스 IPTV 연구센터(이하 IPTV 연구센터, 책임자: 컴퓨터공학과 유인태 교수)가 연구 역량, 국제협력, 특허원천기술, 산학연 협력, 인력 양성 등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아 5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09년 대학 IT연구센터(ITRC) 사업 디지털방송 분야에 선정된 IPTV 연구센터는 4년간의 사업 종료를 앞두고 실시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최우수센터로 선정됐다.

IPTV 연구센터는 그동안 52건의 저널 논문과 35건의 SCI 논문 발표를 비롯해 특허출원 127건(국제특허출원 18건), 특허등록 54건(국제특허등록 20건), 기술이전 26건 등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연구에 참여한 석박사 연구원은 281명에 이르며, 석사 76명, 박사 7명을 배출하기도 했다. 최우수센터로 인정



받은 IPTV 연구센터는 정부로부터 2년간 연구비를 추가 지원받게 됐다.

## 2013년 봄 후마니타스칼리지 북 심포지엄

'2013년 봄 후마니타스칼리지 북 심포지엄'이 5월 1일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심포지엄 주제는 '동아시아는 문명 전환의 축이 될 수 있는가?'였다. 공공대학원 시민사회·NGO학과 김상준 교수는 저서 <강자의 땀 성왕의 피 : 중층근대와 동아시아 유교문명>에서 밝힌 자신의 이론을 발표했다. 김상준 교수는 보편적 의미를 지닌 근대가 서구에서만 형성됐다는 고전적 이론에 의문을 던지고, 동아시아에서도 자생적으로 초기 근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북 심포지엄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혀줄 도서를 선정해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2011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 2013 경희대학교 JAPAN DAY



국제교육원이 한국어 교육과정 개설 20주년을 맞아 3월 14일 '2013 경희대학교 JAPAN DAY'를 개최했다. 벅쇼 코로 주한 일본대사 강연회를 비롯해 일본관광 안내전, 마술 공연, 일본 전통예술 '노가쿠(能樂)' 워크숍, 일본국비유학·JET프로그램·워킹홀리데이·일본기업 설명회, J-POP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서울캠퍼스 곳곳에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일 정부 공동 국비장학생 일본 공과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100여 명의 학생을 포함, 500여 명의 내외국인 재학생이 참여했다.

청운관 B117호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벅쇼 코로 주한 일본대사는 한국과 일본 학생에게 "서로의 문화를 당장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서로가 어떤 문화를 좋아하는지만을 알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교육원은 JAPAN DAY를 시작으로 울

린해 동안 한국어 교육과정 개설 20주년 기념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 '백제기와·문양과 기술로 남은 와공의 자취' 기획전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이 그동안 수집해온 와전(瓦塼, 기와와 전벽돌)을 정리해 '백제기와·문양과 기술로 남은 와공(瓦工)의 자취' 기획전을 개최했다. 총 150여 점의 백제기와가 이번 전시를 통해 공개됐다. '백제기와 기획전'은 6월 30일까지 열린다.

전시 기간 중 김성구 전 국립경주박물관장, 고정룡 리츠메이칸대학 교수, 시미즈 아키히로 데즈카야마대학 교수 등 많은 국내외 기와 연구자들이 '백제기와 기획전'을 관람했다.

중앙박물관은 관람객이 백제기와 제작 과정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옛 와공의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했다. 또 부여 금강사지, 웅정리사지에서 출토된 기와와 비슷한 시기 중국·일본의 기와 형태를 비교·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6~7세기 동북아 3국 간의 교류관계를 생각할 수 있게 했다.

## 2013 미래문명특강 '우리의 이웃, 아시아·태평양'

2013 미래문명특강이 4월 9일 서울캠퍼스 오비스홀 111호에서 열렸다. 특강에 초청된 김광조 유네스코(UNESCO)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장 겸 방콕 사무소장은 '우리의 이웃, 아시아·태평양: 나의 경험,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의 역할에 대해'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광조 본부장은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인구 구조, 경제, 기술, 기후 변화에서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한 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 다양성과 역동성을 지닌 우리의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빈곤·환경문제 등을 함께 고민하며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석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스펙을 쌓기보다는 국경을 넘어서는 지구적 문제들에 관해 깊이 성찰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라”고 조언했다.

### 청강 김영훈 선생 진료기록, 국가기록물 지정

경희대학교 한의학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강 김영훈 선생의 진료기록물 955권이 4월 8일 국가지정기록물 제7호로 지정됐다. 국가기록원은 “청강 김영훈 선생의 진료기록물은 근대 의료체계 형성에 전통의학 및 국민보건의료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기록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한의학역사박물관은 2012년 10월 기증받은 청강 김영훈 선생의 진료기록물을 복원·정리해 데이터베이스



화했으며, 선생의 저작 <수세현서(壽世玄書)>에 대한 연구, ‘보춘의원 치료환자 통계기록 고찰’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향후 수십만 권에 달하는 진료기록 분석을 통한 의학적 특징과 조선 왕실의학 특징과의 연관성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16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제16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본선 대회가 5월 15일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에서 열렸다.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16개국 20명이 참가해 한국어 실력을 겨뤘다.

경희대학교 한국어과정 개설 20주년과 스승의 날 기념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의 주제는 ‘나의 한국어 선생님’, ‘한국문화 체험’이었다. 올해는 예심 과정에서 40개국 1,218명의 지원자가 몰려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본선 참가자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어 선생님을 소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인기상을 받은 프랑스 출신의 티에보 마에바 마르틴 안드리 학생(국제교육원)은 엄격한 어머니 같은 한국어 선

생님과 자유분방하게 한국어를 가르쳐준 남자친구를 소개한 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명의 선생님 때문에 빚어진 일화를 들려줬다. 그는 “가끔 두 선생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한국어 실력은 쑥쑥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출신의 라비 쿠마르 린잔 학생(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 박사 2기)은 “소주를 통해 한국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게 됐다”면서 “소주”를 한국어 선생님이 소개했다. 이외에 K-POP, 한국 드라마, 태권도, 지하철, 축구장, 남편과 딸을 한국어 선생님이 모시고 있다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 ‘신개념 대학도서관의 비전과 철학’ 논의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건축추진위원회 학술포럼 ‘신개념 대학도서관의 비전과 철학’이 4월 10일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 34,000㎡ 규모로 중앙도서관을 확장·증축하여 개교 70주년인 2019년 개관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중앙도서관 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과 공생 가치 창출’이라는 경희의 철학을 반영한 미래도서관을 계획 중이다. 이번 학술포럼은 그 계획의 하나로 열린 행사다.

김진영 중앙도서관장은 기초발표에서 “도서관은 단순한 건축 구조물을 넘어 공공적·사회적·역사적 요구와 책무, 가치를 담아야 한다”면서 “급변하는 인류 사회의 기술, 학문, 문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치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정보통신(IT)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와 이용자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도서관, 경희의 비전과 철학을 담은 도서관을 신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매그놀리아 스토리 Magnolia Story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대외협력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소액모금 캠페인으로, 경희사랑의 마음을 모아 서로 돕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나눔의 이야기다.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교내에 확산시키고, 대학의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은 크게 장학기금과 사회봉사기금으로 나누어져 있다. 장학기금은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 기금으로, 사회봉사기금은 경희사회봉사기금과 경희의료봉사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을 통해 동문들은 자신이 졸업한 학과나 대학을 지정해 배움에 대한 열정과 비전은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를 격려하고 선후배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배는 ‘훗날 선배가 되었을 때 미래의 후배를 돕겠다’는 마음의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문화의 전통이 이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회봉사기금은 환경보호, 기아문제 해결, 난민 지원 등 지구적 사회공헌

을 실천하는 경희의 각종 해외봉사, 경희지구사회봉사단 활동, 난치병 해소와 무의촌 진료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봉사 지원 등에 사용된다.

### 참여 인원과 방법 및 기금 조성액 현황(2013년 5월 31일 현재)

2010년 10월 말 학교 구성원 중심으로 시작된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교직원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발족 2주 만에 1억 8,000여 만 원을 돌파했고, 2013년 5월 현재 23억 8,000여 만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조성 금액 : 2,380,059,206 원
- 참여 인원 : 2,335 명
- 참여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magnolia.khu.ac.kr>)에서 쉽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대외협력처에 직접 방문해서 참여할 수도 있다.
- 문의 :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02-963-4874~6)



##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제 15호

최근 발표된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경희는 아시아 35위(국내 7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40위권에 진입한 데 이어 올해에는 최초로 30위권으로 도약했습니다. 특히 연구 탁월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학계 평가의 순위 상승'이 주목됩니다. 또한,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졸업생 평판도'에서 작년보다 30개 단 뛰어오르며 51위를 차지한 것은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인재'를 선호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같은 성과는 개교 70주년 이전에 '아시아 정상'에 도달한다는 비전과 목표 아래, 지난 6년간 '학술적 탁월성'을 추구해온 경희의 담대한 비전과 진취적 도전정신, 지속적 혁신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번호 뉴스레터는 OS 아시아대학평가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바탕이 된 '경희의 학술문화'를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오는 8월 종료되는 대형 국제사업인 'WCU 사업'을 통해 지난 5~6년간 '경희의 연구 역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경제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에서 2년 연속 최고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후마니티스컬리지 학생들도 교양과 실전이 결합된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15호 2013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조인원 편집·발행 출판문화원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 02-961-0106~8 이메일 khds3080@khu.ac.kr 홈페이지 www.khu.ac.kr